

주간 통일정세

2016-20

Contents

I. 북한정세

1. 정치
2. 경제
3. 사회문화
4. 외교국방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II.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내용
정치	5.15	北김정은, 당대회후 두번째 공개행보...양묘장 시찰(연합뉴스)
		北김정은, 당대회 끝나자 청와대 타격훈련 연기했다(연합뉴스)
		北 당 간부들, 70일전투 결산 앞두고 간장(자유아시아방송)
	5.16	김정은, 제재동참 중에 본때...5차핵실험 지시(데일리NK)
		北 김정은, 영도자에 걸맞은 직함이 필요했다(연합뉴스)
		北 노동당 지방 조직도 위원장 체제 가동(연합뉴스)
		김정은 '홍위병' 육성하나...당대회 '핵심대표' 대폭 증가(연합뉴스)
	5.17	北 당대회 끝나자 모내기전투 주력(연합뉴스)
		北김영남 베이징서 목격...아프리카 방문 예정(연합뉴스)
		AP통신 "북한 새 외무상에 리용호 임명"(연합뉴스)
		北, 당대회 앞서 예술작품으로 김정은 우상화(연합뉴스)
	5.18	北, 70일 전투 이어 모내기 전투 선전(데일리NK)
		北 리용호 새 외무상에 국내외 전문가들, 말 통하는 인물(연합뉴스)
		北 함경남도 위원장 김성일로 교체(연합뉴스)
		김정은 총화보고 배우자...北매체 학습 독려(연합뉴스)
5.19	北김정은, 기계공장 시찰...당창건 기념일까지 현대화(연합뉴스)	
	김여정 미혼...최룡해 아들 3년 전 사망(미국의소리)	
	북한, 당대회 외신 반응 '아전인수식' 보도(연합뉴스)	
5.20	北 김정은, 완공 앞둔 자연박물관 중앙동물원 시찰(연합뉴스)	
	北 강석주, 식도암으로 사망...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주역(연합뉴스)	
	대북 전문가, 北 최고인민회의 6월 열릴듯...구호관 제작 지시(연합뉴스)	
경제	5.15	북한 경제난 핵심 요인은 전력공급 부족(연합뉴스)
		마이니치신문, 평양 아파트 공급 과잉에 가격 반 토막(연합뉴스)
	5.17	조선신보, 北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선결 조건은 전력(연합뉴스)
		농번기 맞아 중국 밀입국 北주민 급증(자유아시아방송)
		北, 중동 국가 선박 등록으로 외화 벌어들임(미국의소리)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3일 개막...참가업체 급감(연합뉴스)		
5.18	명품의류 中하청업체 北 노동자 대거 고용(자유아시아방송)	

사회 문화	5.19	北, 외화벌이 일꾼에 '인센티브제' 도입(자유아시아방송)
	5.20	北, 항공유 규제에도 평양~의주 노선 신설(자유아시아방송)
		北, 중국상품을 국산품으로 속여 폭리(자유아시아방송)
	5.15	WP, 북한 1% 부유층, 평양서 맨해튼 같은 호화생활(연합뉴스)
	5.16	北, 노동단련대 축소 발표에 주민들 시큰둥(자유아시아방송)
	5.18	北, 농촌동원기간 선포...시장·유동 인원에 통제 강화(연합뉴스)
		북한 신흥 부유층 돈주 대두에 광고업 태동(연합뉴스)
5.19	北, 금연연구보급기지 설립...금연운동 본격화하나(연합뉴스)	
외교 국방	5.15	北, 테러지원 조사 보고하라...美하원의원들 법안 초당적 발의(연합뉴스)
		北, 제재선박, 日근해 재출몰...정부, 관련동향 주시(연합뉴스)
	5.16	북한, 억류 러 요트 이틀 만에 석방...어부들이 오해로 나포(연합뉴스)
		美국무부, 자국민에 또 북한여행경보...부당한 가혹 처벌 우려(연합뉴스)
		WSJ, 중국 적극 참여에 대북제재 효과...고삐 더 조여야(연합뉴스)
		주중 북한대사관서 노동당 대회 경축연화...中 왕자루이 참석(연합뉴스)
		中, 가지의 눈에 비친 북한...스스로 대국 강국 갈망(연합뉴스)
	5.17	北도발에 日여당서 '기지 타격능력 갖추자' 주장 대두(연합뉴스)
	5.18	美전문가들, 차기정부에 북한문제 집중 한목소리 주문(연합뉴스)
		백악관, G7서 북핵 논의...北 안 바뀌면 임기 끝까지 고립시킨다(연합뉴스)
		中, 김정은과 대화 트럼프 발언에 북미 대화 지지(연합뉴스)
	5.19	시에라리온 "제재 대상 北선박 2척, 이제 우리 선적 아니다"(연합뉴스)
		38노스 "북한, 당대회 기간에도 SLBM개발 계속"(연합뉴스)
		北, 충격요법식 대남 도발로 '게임체인저' 시도할 것(연합뉴스)
		백악관, 대북압박 불변...北비핵화 약속하면 대화 준비(연합뉴스)
		북핵, 美차기 행정부 최대 의제로 부상...고강도 압박 예고(연합뉴스)
		美전문가 "트럼프 김정은 만남, 北핵보유국 인정하는 필"(연합뉴스)
		북한 고위 지도자, 트럼프와의 대화 나쁠 것 없다(연합뉴스)
		오바마 임기내 북핵협상 물건너가...차기행정부서 최우선 의제(연합뉴스)
북한 방문한 외신기자, 관라 주민들 중국에 피해망상(연합뉴스)		
러 전문가, 北 핵보유국 지위 국제사회 인정 못받을 것(연합뉴스)		
5.20	스위스, 자국내 북한 자산 동결...대북 독자제재(자유아시아방송)	
	EU, 대북 추가 제재...개인 18명·단체 1개 신규 제재(연합뉴스)	
	군사 전문가 "北, 노동미사일 탑재용 핵무기 경량화 가능성"(연합뉴스)	
5.20	미국 하원, 국방예산법에 한반도 비핵화 지지 외교정책 명시(연합뉴스)	

러 장관 나잔하산 프로젝트 대북 제재 영향 안 받을 것(연합뉴스)

스위스 이어 러시아도 대북 금융거래 전면금지(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6. 5. 15.

■ 北김정은, 당대회후 두번째 공개행보…양묘장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현대화공사를 거친 122호 양묘장을 시찰하는 것으로 노동당 7차 대회 폐막 후 두 번째 공개행보에 나섬.
- 김 위원장은 평양 근교의 122호 양묘장을 둘러보면서 “온도, 습도, 해비침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영양액시비량 등 나무모(묘목) 재배에 가장 적합한 조건과 환경을 보장할 수 있도록 양묘장에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했다”며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5일 보도함.
- 이날 시찰은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박영식 인민무력부장, 오수용 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조용원,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함.

■ 北김정은, 당대회 끝나자 청와대 타격훈련 연기했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당 대회가 끝나자 평양 인근에서 준비하던 청와대 타격훈련을 전격 연기하도록 지시한 정황이 포착됨.
- 정부와 정보 당국은 북한이 당 대회 이후 당장 군사적 도발에 나서기보다는 민생안정 등으로 정책을 변화할지 등을 판단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동선과 북한군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정부의 한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평양 외곽의 대원리 화력 시범장에서 청와대 본관 모형을 설치해 놓고 타격훈련을 준비해왔는데 당 대회 이후 동원된 포병전력을 철수하고 있다”고 밝힘.
- 다른 관계자는 “북한이 훈련 자체를 취소했는지 연기했는지를 계속 분석 중”이라며 “청와대 모형을 철거할 징후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 연기했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북한군 동향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함.
- 정보 당국도 포병전력은 그때그때 동원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격훈련을 연기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짐.
- 이에 정부의 한 대북 전문가는 “남한 언론에 훈련을 준비하는 기사가 나가는 등 사전 준비 작업이 다 들통났기 때문에 실제 훈련을 하더라도 그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면서 “지난 9일 폐막한 당 대회의 주요 참가자들에게 훈련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했지만, 김정은의 지시에 의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2016. 5. 16.

■ **김정은, 제재동참 中에 본때...5차핵실험 지시(데일리NK)**

- 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대북 제재에 동참한 중국에 대한 반발 차원에서 제5차 핵실험 강행을 명령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6일 보도함.
- 평양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최근 위(김정은)에서 (5차) 핵시험(실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핵시험 강행 날짜가 정확히 언제인지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다”고 말함.
- 소식통은 이어 “이번 시험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에 대한 반발로 이뤄지는 것”이라면서 “미제(미국)에 동조하여 우리나라(북한)를 적대시하는 중국에 본때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고 말했다고 이 매체는 주장함.

■ **北 김정은, 영도자에 걸맞은 직함이 필요했다(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선대지도자의 반열에 오르기 위해서는 명실상부한 영도자에 걸맞은 직함이 필요했다고 남성욱 고려대 교수가 주장함.
- 남 교수는 16일 경희대 동문회관에서 평화문제연구소가 주관한 ‘제7차 당 대회를 통해 본 북한의 미래’라는 주제의 제3차 통일한국포럼 발제문을 통해 “당대회에서 김정은에게 부여된 ‘위원장’이라는 명칭이 직제상의 치밀한 의미가 담겨 있다기보다는 당의 모든 권한을 관할한다는 뜻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함.
-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7차 당 대회 이후 북한 경제정책에 대한 기조 발제에서 “북한이 경제 강국 건설을 위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016~2020)을 제시했지만,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이 ‘경제와 핵 무력의 병진 노선’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개혁·개방으로 발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함.

2016. 5. 19.

■ **北김정은, 기계공장 시찰...당창건 기념일까지 현대화(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폐막 이후 세 번째 공개 행보로 평안북도의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동지께서 당 제7차 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있는 ‘허철용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고 보도함.
- 이날 현지지도는 리만건 당 중앙위 부위원장장과 조용원 당 중앙위 부부장이 수행했

으며, 김능오 당 평안북도 위원장이 현지에서 이들을 맞음.

2016. 5. 21.

■ **北 김정은, 완공 앞둔 자연박물관·중앙동물원 시찰(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완공을 앞둔 평양의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이날 “착공의 첫 삽을 박은 때로부터 불과 1년 남짓한 사이에 연건축면적이 3만5천여㎡에 달하는 자연박물관 건설이 드디어 완공 단계에 이르렀다”면서 “건설자들은 방대하고 아름다운 공사에서 만리마 속도를 창조하기 위한 비약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중앙동물원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멋들어지게 전변시켰다”고 밝힘.
- 이날 김 위원장의 시찰에는 오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여정·조용원 부부장, 마원춘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등이 수행함.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6. 5. 17.

■ **北김영남 베이징서 목격…아프리카 방문 예정(연합뉴스)**

-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17일 오전 고려항공편을 이용해 중국에 입국함.
- 베이징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베이징 서우두(首都) 공항에 도착한 뒤 주중 북한대사관 차량을 이용해 베이징 시내로 이동함.
- 그의 중국 방문 이유는 아직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음. 한 소식통은 이에 대해 “아프리카를 가던 길에 경유차 들른 것”이라며 중국과의 회담 등을 위해 온 것은 아니라고 말함.

■ **AP통신 “북한, 새 외무상에 리용호 임명”(연합뉴스)**

- 북한이 리용호 외무성 부상을 새 외무상에 임명했다고 AP통신이 17일 서울발로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주영 북한대사관은 전날 영국 정부에 통지문을 통해 리용호 외무상의 취임 소식을 알힘.
- AP통신은 통지문에 기존 외무상인 리수용의 거취는 언급되지 않았다고 전함. 다만 한국 정보당국은 리수용이 노동당 국제담당 부위원장이 된 것으로 본다고 전함.

2016. 5. 18.

■ **北 리용호 새 외무상에 국내외 전문가들, 말 통하는 인물(연합뉴스)**

- 리용호 북한 새 외무상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대체로 말이 통하는 인물로 평가하고 있음.
- 조엘 위트 미국 존스홉킨스대 선임연구원은 1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리 외무상에 대해 “사안을 잘 아는 매우 실력 있는 사람으로 북한의 이익을 강하게 대변하지만, 최소한 말은 통하는 사람”이라고 말함. “하지만 그가 다른 북한 사람들보다 더 유연하다거나 더 합리적이라는 건 아니다”라며 “북한 사람들은 세계를 보는 자신들만의 관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 1990년대 초부터 핵 문제를 비롯한 각종 대미 협상에 참여하면서 북한의 차세대 외교 주역으로 주목받아왔던 리용호 외무상은 2010년 부상 자리에 올랐으며, 이듬해에는 6자 회담의 북측 수석대표를 맡기도 했음.

■ **北 함경남도 위원장 김성일로 교체(연합뉴스)**

- 북한 함경남도 당위원장이 태종수(80)에서 김성일로 바뀐 것으로 18일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방송은 이날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를 경축하는 자강도, 함경남도, 양강도의 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면서 “함경남도 군중대회에서 김성일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했다”고 보도함.
- 한편 당대회 폐막 이튿날인 지난 10일의 평양시 군중대회를 시작으로 각급별 당대회 경축 군중대회를 진행하는 북한은 김정은의 직함을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변경한 데 이어 도당위원회 조직에서도 ‘위원장’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함.

2016. 5. 19.

■ **김여정 미혼…최룡해 아들 3년 전 사망(미국의소리)**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당 부부장이 미혼이라는 주장이 거듭 제기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9일 “김여정은 아직 미혼이며 최룡해 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며느리라거나 당 39호실 근무자와 결혼했다는 소문은 모두 근거 없는 얘기”라고 지난해 초 북한에서 나온 탈북자를 인용해 보도함.
- 이 탈북자는 이어 김여정이 “2012년 2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1과장에 임명된 뒤 2014년 10월 선전선동부 정치행사 담당 부부장으로 승진했다”며 “한국 언론에 김여정이 행사장을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것처럼 비쳐지는 것은 행사 조직과 관리 총 지휘책임자로서 현장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임.

2016. 5. 21.

■ **北 강석주, 식도암으로 사망…북미 기본합의서 체결 주역(연합뉴스)**

- 북한 강석주 전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20일 식도암으로 사망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1일 보도함.
- 중앙방송은 “강석주 동지는 (식도암으로 인한) 급성호흡부전으로 주체 105(2016)년 5월 20일 16시 10분 76살을 일기로 애석하게도 서거하였다”면서 “동지의 영구는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회관에 안치되어 있다”고 밝힘.
- 그의 사망에 따라 북한 외교 진용은 '리수용-리용호' 라인으로 구축됨. 노동당 정무국 국제담당 부위원장직을 맡은 것으로 보이는 리수용 전 외무상과 리용호 신임 외무상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새로운 외교 라인이 짜진 것임. 당 중앙위원회 위원인 김계관 제1부상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관측이 나옴.

다. 공식행사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기관 행위

2016. 5. 15.

■ **北 당 간부들, 70일전투 결산 앞두고 긴장(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70일 전투’ 속도전의 결산을 앞두고 긴장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5일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보도함.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 오사카(大阪)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 대표는 RFA에 “지난달 초에 (70일 전투의) 중간 총화(결산)를 했지만, (지난 2일) 다 마무리된 후에는 당대회 때문에 총화를 못했다”며 이같이 전함.
- 이시마루 대표는 “70일 전투 기간 기업소마다 경쟁을 했는데, 성과를 내지 못한 조직 단위는 이제 비판을 받게 된다”며 “담당 간부들이 벌써 불안해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덧붙임.

2016. 5. 16.

■ **北 노동당 지방 조직도 위원장 체제 가동(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대회를 통해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직함을 ‘제1비서’에서 ‘위원장’으로 변경한데 이어 도당위원회 조직에서도 위원장 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함.

- 북한 관영 라디오인 조선중앙방송은 16일 황해남도 군중대회 소식을 전하며 “박영호 도당위원회 위원장이 연설했다”고 보도함.
- 당대회를 앞두고 지난달 25일 진행된 황해남도 당대표회 관련 보도 당시 조선중앙통신은 박영호를 ‘책임비서’로 부름.

■ 김정은 ‘홍위병’ 육성하나…당대회 ‘핵심대표’ 대폭 증가(연합뉴스)

- 지난 9일 폐막한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에 참석한 당 대표자 가운데 '(기업소 등) 현장에서 일하는 핵심당원대표'의 비율이 이전의 비슷한 행사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16일 분석됨.
-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의 ‘홍위병식’ 활동이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이에 대해 박영자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최근 발표한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지도체계 및 엘리트’ 보고서에서 “대표자 구성에서의 현장 대표 비율과 북한이 제기한 ‘만리마속도창조운동’ 전개 양상 등을 보면 향후 각 지역 및 생산 현장에서 이들의 ‘홍위병식’ 활동이 두드러질 전망”이라고 분석함.

2016. 5. 17.

■ 北, 당대회 앞서 예술작품으로 김정은 우상화(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7차 대회를 열어 명실상부한 ‘김정은 시대’를 선포하기 앞서 예술작품을 동원한 ‘김정은 우상화’를 활발하게 진행한 것으로 17일 확인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속도전인 ‘70일 전투’ 기간 청년학생들이 1천200여 편의 문학작품들을 창작했다면서 이 가운데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관련 작품도 다수였다고 지난 13일 전함.
- 김 위원장은 지난 9일 폐막한 7차 당대회 사업총화(결산)보고에서 “문학예술 부문에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영광찬란한 혁명역사와 불멸의 업적, 고매한 품모를 깊이 있게 형상한 명작, 역작들을 창작하여야 한다”고 주문함.

2016. 5. 21.

■ 대북 전문가, 北 최고인민회의 6월 열릴듯…구호판 제작 지시(연합뉴스)

- 최근 제7차 노동당 대회를 치른 북한이 오는 6월께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이 크다는 대북 전문가의 주장이 나옴.
-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21일 북한내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맞이할 구호판을 제작하라는 북한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면서 “이를 보면 최고인민회의가 6월에 열릴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함. 또 “(이렇게 되면) 4월이나 12월에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던 기존 관례를 벗어나 매우 이례적이 된다”고 말함.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2016. 5. 16.

■ 北, 당대회 끝나자 모내기전투 주력(연합뉴스)

- 북한이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이후 농번기를 맞아 곡식 생산량 증대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음.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모내기전투에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 올해 알곡생산의 돌파구를 열자’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농업전선에서 대승전고를 높이 올리는 것은 당대회 정신을 보위하고 우리 혁명의 미래를 담보할 뿐 아니라 백년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우리 당의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함.
- 그러면서 “지난해 100년내 왕가물(가뭄)이 든 어려운 조건에서도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모내기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한 시, 군 일꾼들의 사업 경험은 많은 것을 시사해준다”며 “올해 모내기 전투를 제철에 질적으로 와다닥 끝내기 위해서는 협동벌 어디서나 만리마속도창조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2016. 5. 17.

■ 北, 70일 전투 이어 모내기 전투 선전(데일리NK)

- 북한 당국이 이달 초 '70일 전투'를 끝낸 데 이어, 이번엔 주민들에게 ‘모내기 전투’를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나섰다.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현지 소식통을 인용해 17일 보도함.
- 북한에서 해마다 모내기 전투에 참여했던 탈북자는 데일리NK에 “북한 당국은 주민들이 체제와 사상 외에 다른 생각을 못 하도록 하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서 “70일 전투와 7차 당 대회가 끝난 지 얼마 안 돼 바로 모내기 전투를 지시한 것은 굶주림 등 고통은 외면하고 주민들을 오로지 당의 지시에만 집중시키기 위한 술수”라고 지적함.
- 북한 당국의 선전과 달리 모내기 전투는 당국의 지원이 전무한 가운데 실시되는 대표적인 노동착취 사업이라는 게 탈북자들의 공통된 증언이라고 매체는 전함.

2016. 5. 18.

■ 김정은 총화보고 배우자…北매체 학습 독려(연합뉴스)

- 북한은 18일 기업소와 농장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면서 주민들에게 최근 폐막한 제7차 노동당 대회의 사업총화(결산) 보고에 대한 학습을 독려하고 나섬.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자자구구 뼈에 새기자'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 “당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에 대한 학습에서 황해제철연합기업소 일꾼들은 선구자적인 모범을 보이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당 대회 보고학습을 자기 부문, 자기 단위 앞에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과 결부하여 실속있게 진행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함.

2016. 5. 20.

■ **북한, 당대회 외신 반응 ‘아전인수식’ 보도(연합뉴스)**

-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노동당 7차 대회에 초청한 외신들의 반응을 유리한 면만 부각하는 등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해 보도함.
- 중앙통신은 20일 “여러 나라 방송이 조선을 방문한 기자들의 인상기를 소개하였다”며 캐나다의 CBC 방송, 태국의 더 네이션 방송 등의 반응이라면서 보도를 이어나감.
- 통신은 “캐나다의 CBC 방송이 방송사기자단의 평양방문현지보도를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며 “김정은 최고령도자의 참석하에 10일 김일성 광장에서 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를 경축하는 평양시 군중대회 및 군중시위가 성대히 진행되었다. 시위는 령도자에 대한 드팀(틈) 없는 지지를 과시하였다”고 소개했다고 전함.

2. 경제

가. 정책 동향

2016. 5. 17.

■ **조선신보, 北 경제개발 5개년 전략 선결 조건은 전력(연합뉴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개발 5개년 전략’의 가장 우선적인 요소가 ‘전력’이라고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17일 밝힘.
- 당대회가 지난 9일 끝난 이후 ‘5개년 전략’에 대해 북한과 직접 관련된 매체에서 분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전력 문제를 핵심 과제로 제시한 만큼 향후 우라늄 농축, 경수로 건설 등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병진 노선을 관철시키는 과정에서 민간과 군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도 보여줬다”고 분석함.

나. 주요조치

2016. 5. 19.

■ 北, 외화벌이 일꾼에 '인센티브제' 도입(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이 유엔의 대북제재로 자금난을 겪게 되자 해외의 외화벌이 인력들을 대상으로 성과에 따라 수익의 일부분을 주는 인센티브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정찰총국 소속 전투원들이 중국에서 컴퓨터 게임개발과 금융 전산망 해킹 등을 통해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도 이렇게 벌어들인 수익 가운데 일부를 개인에게 허용해주는 식으로 물질적 욕구를 자극하고 있다”고 주장함.
- 그는 “정찰총국 공작원 중에는 신흥 자본가가 된 사람들이 적지 않다”면서 “중국 다롄(大連)에서 활동하는 이들은 평양에 건설되는 아파트에 적지 않게 투자하는 수준으로, 초기에 투자해놓고 완공된 다음 아파트 몇 채를 받는 식으로 재산을 증식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당국은 영재들을 어려서부터 특별히 교육해 정찰총국 전투원으로 키운 다음 중국과 동남아 등 여러 나라에 보내 외화벌이를 시키고 있다고 이 소식통은 전함.

다. 경제 상황

2016. 5. 15.

■ 북한 경제난 핵심 요인은 전력공급 부족(연합뉴스)

- 북한 경제난의 핵심 요인은 전력공급 부족에 따른 경제 선순환 구조 붕괴라는 분석이 나옴. 윤재영 한국전기연구원 책임연구원은 15일 'KDI 북한경제리뷰 5월 호'에 발표한 논문에서 “북한의 경제난은 체제의 비효율성과 핵개발 고수로 인한 군사적 긴장 관계 때문이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전력공급 부족이 가장 주된 원인”이라고 밝힘.
- 중화학 공업 중심으로 발달한 북한 경제에 전력 부족이 치명타를 입혔고 ‘탄광 동력 부족→석탄 생산 감소→석탄 부족→연료 부족→화력발전소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가 나타났다는 것임.
- 윤 연구원은 “독일은 통일 이전에 정치, 경제적 교류가 폭넓게 있었지만 전력 등 경제 인프라·산업분야 협력은 미진해 통일 이후 많은 혼선이 있었다”며 “남북한이 독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마이니치신문, 평양 아파트 공급 과잉에 가격 반 토막(연합뉴스)**

- 평양 시내의 고급 아파트 가격이 올해 들어 반값 이하로 폭락한 것이 복수의 북한 관련 소식통을 통해 파악됐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15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평양 시내 중심부에 있는 고급 아파트의 경우 약 200㎡ 면적에 가장 높은 층이면 작년 하반기에는 시세가 약 20만 달러(약 2억3천430만원) 정도 였으나 최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에서는 부동산 매매가 금지돼 있으나 실제로는 물밑에서 빈번하게 거래가 이뤄진다고 신문은 덧붙임.

2016. 5. 17.

■ **농번기 맞아 중국 밀입국 北주민 급증(자유아시아방송)**

- 농번기를 맞아 중국 농촌으로 품팔이를 하기 위해 밀입국하는 북한 주민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7일 보도함.
- 중국 국경지방의 한 소식통은 RFA에 “요즘 중국 농촌에는 할 일이 많은데, 일할 사람이 없어서 북한에서 일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다”며 “돈을 벌어서 넘어가는 (북한) 사람도 많다. 북한 사람들이 일도 잘한다”고 말함.
- 중국인들이 북한 사람들을 고용하면 중국 공안 당국은 단속에 나서기 마련이지만, 공안들도 농촌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는 형편이라고 이 소식통은 덧붙임.

2016. 5. 20.

■ **北, 중국상품을 국산품으로 속여 폭리(자유아시아방송)**

- 수입병을 없애고 국산품을 장려하라는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일부 특수기관에서 중국상품을 수입해 국산품으로 속여 팔아 폭리를 얻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대북소식통은 RFA에 “국산품을 장려하라는 김정은의 지시로 국영상점과 백화점에는 국내(북한) 상표를 단 상품들이 출시됐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주문 제작하거나 부속을 들여다 조립한 것”이라며 대표적인 상품이 아리랑 판형 TV와 삼지연 판형 컴퓨터(태블릿 PC) 같은 전자제품이라고 전함.
- 과거에는 외국제가 좋다고 국산 상품에 외국 상표를 몰래 붙여 파는 바람이 불었는데, 지금은 국산품 장려 지시로 외국상품에 국산 상표를 붙여 팔 수밖에 없다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라. 대외 경제 관계

2016. 5. 17.

■ 北, 중동 국가 선박 등록으로 외화 벌이(미국의소리)

- 북한이 선박 등록료 등을 저렴하게 책정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선박 국적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17일 교도통신을 인용해 지난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UAE)의 민간기업 소유 선박 3척이, 올해 3월 또 다른 (중동의) 민간 선박 3척이 편의치적(便宜置籍) 방식으로 북한 국적을 취득했다고 보도함.
- 한편 이들 북한 국적 선박들은 여전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인근 지역에서 활발히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VOA는 덧붙임.

■ 평양국제상품전람회 23일 개막…참가업체 급감(연합뉴스)

- 제19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가 오는 23~26일 평양 3대혁명전시관에서 열린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함.
- 행사에는 북한을 비롯해 뉴질랜드,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말레이시아, 몽골, 싱가포르, 중국, 캄보디아 등 17개국 220여 개 회사가 참가한다고 통신은 덧붙임.
- 북한이 밝힌 지난해 봄 행사의 참가업체 수는 300여 개로, 올해 들어 업체 수가 대폭 줄었음.

2016. 5. 18.

■ 명품의류 中하청업체 北 노동자 대거 고용(자유아시아방송)

- 영국의 버버리 등 명품의류를 주문받아 생산하는 중국 의류업체들이 북한 노동자들을 대거 고용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중국 소식통은 RFA에 “중국 허베이(河北)성에 있는 의류 하청업체인 ‘메이다오복 장유한공사’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대표적 기업체”라며 이같이 말함.
- 그러면서 “미국과 영국, 일본의 유명 기업과 연계된 (중국의) 하청업체가 북한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임금이 김정은 정권의 통치자금과 핵·미사일 개발 자금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덧붙임.

2016. 5. 20.

■ 北, 항공유 규제에도 평양~의주 노선 신설(자유아시아방송)

- 북한의 고려항공이 항공유 대북 규제에도 다음 달 6일부터 북중 국경지역과 가까운 평안북도 의주와 평양간 노선을 신설할 예정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미국 매체를 인용해 보도함.

- 중국 베이징(北京)에 본부를 둔 사이먼 코커렐 고려여행사 대표는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NK뉴스에 이같이 말하면서 해당 노선은 1주일에 한 번씩 운항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함.
- 하지만 고려항공이 이 정기노선을 부활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VOA는 전함.

3.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2016. 5. 16.

■ 北 노동단련대 축소 발표에 주민들 시큰둥(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죄질이 가벼운 범죄자들을 수용해 노역을 시키는 단기수용시설인 노동단련대를 축소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민들은 이를 기만전술로 여기며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6일 보도함.
-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RFA에 “중앙에서 꼬빠크(노동단련대)를 대폭 축소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선포했다”며 “이번 조치는 남조선과 국제사회에서 조선에 강제노력 동원과 정치범수용소가 많다고 지적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함.
- 또다른 소식통도 “당국이 강연회에서 꼬빠크를 축소할 것이라고 주민들에게 알린 것은 사실”이라며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주민생활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당국에 대한 분노와 실망감을 나타내자 이를 달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꼬빠크 축소를 들고나온 것 같다”고 말함.

2016. 5. 19.

■ 北, 금연연구보급기지 설립…금연운동 본격화하나(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전국 각 지역에 금연연구보급기지를 설립하는 등 금연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음.
- 특히 ‘골초’로 유명한 애연가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현지지도 과정에서 지하철 객실, 미사일 앞에서 수시로 담배를 손에 들고 나타났지만, 지난 3월 15일 ‘탄도로켓’ 대기권재돌입환경 모의시험을 끝으로 현재까지 두 달 넘게 담배 피우는 장면이 목격되지 않고 있음.
- 북한 매체들이 앞장서 흡연의 유해성을 강조하면서 금연운동을 홍보하는 점도 관심을 끄.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19일 “대북제재가 갈수록 강화되고 당 대회가 끝난 시점에 북한 당국이 대중운동 차원에서 금연운동을 전개할 수 있다”면서

“흐트러진 분위기를 다잡고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금연운동의 목적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함.

2016. 5. 18.

■ **北 농촌동원기간 선포…시장·유동 인원에 통제 강화(연합뉴스)**

- 북한 당국이 5월 모내기 철을 맞아 전역에 ‘농촌지원 총동원 기간’을 선포하고 공간기관을 내세워 시장과 유동 인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북한 전문매체인 데일리NK가 18일 보도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에 “최근 당중앙위원회 정무국 지시문을 통해 전국에 ‘농촌지원 총동원 기간’이 선포됐다”며 “총동원 기간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한 달이고, 이 기간에는 장사나 사사여행(개인 용무로 여행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할 것도 지시했다”고 전함.
- 주민들은 ‘70일 전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이처럼 거듭 농촌동원을 강요한 당국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6. 5. 15.

■ **WP, 북한 1% 부유층, 평양서 맨해튼 같은 호화생활(연합뉴스)**

- 북한에도 1% 부유층이 있으며 이들은 수도 평양에서 마치 뉴욕 맨해튼과 같은 삶을 누리며 이들이 사는 세계는 ‘평양맨해튼’(Pyonghattan)이라 부를 만하다고 워싱턴 포스트(WP)가 14일(현지시간) 평양발로 보도함.
- 최근 북한 노동당 7차 대회를 취재한 WP 기자들은 평양 주체탑 근처 독일식 레스토랑에 갔을 때 메뉴판에서 구운 감자와 같이 나오는 프라임 스테이크의 가격이 48달러(약 5만6천원)인 것을 봄.
- WP는 “이 모든 것이 진실을 숨기기 위한 걸치레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가난은 더 이상 공평히 나뉘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웅변한다”고 말함.

2016. 5. 18.

■ **북한 신흥 부유층 돈주 대두에 광고업 태동(연합뉴스)**

- “평양 화주 : 한 번 마시면 잊을 수 없는 술”. 자본주의의 꽃이라는 '광고'와 북한만큼 거리가 먼 나라는 없었지만, 돈주로 불리는 신흥 부유층이 등장하면서 이것 역시 옛말이 되는 모양새임.
- 합법과 불법 사이의 회색 경제인 장마당 등에서 부를 쌓은 돈주들의 주머니를 열기 위해, 북한 내 주요 기업들이 앞다퉈 광고전에 뛰어든 결과임. 평양 시내에서 발견되는 광고들은 김정은 체제를 찬양하는 선전물 사이에서 너무 두드러져 보이지 않기 위해 크기가 작고, 애매한 위치에 놓인 경우가 많아짐.
- 하지만 모든 선전수단을 국가가 독점하는 북한 사회에서 광고의 등장은 중대한 변화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임.

■ **北 당대회 참가자들 선물 풍성…주민들은 불만(자유아시아방송)**

- 제7차 노동당 대회에 참가했던 대표자들이 풍성한 선물을 받은 데 대해 일반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아시아프레스를 인용해 18일 보도함.
- 일본의 언론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지난 16일 당 대회에 참가한 대표자들에게 선물 증정식이 있었고, 그날 증정한 선물은 냉장고, 냉동고, 평면TV, 화장품, 식료품, 비옷, 장화 등이었음.
- 올해는 철도 사정으로 이전과는 다르게 당 대회 참가자와 선물을 따로 운송했으며, 함경북도는 16일 선물 증정식에 맞추려고 별도의 여러 교통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짐.

4.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6. 5. 15.

■ **北 테러지원 조사 보고하라…美하원의원들 법안 초당적 발의(연합뉴스)**

-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를 미국 행정부가 직접 조사한 뒤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의 법안이 미국 하원에 제출됨.
- 15일(이하 현지시간) 미 하원에 따르면 ‘2016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H.R.5208)은 테드 포(공화·텍사스)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공동 발의자는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의원임.

- 이 법안은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테러 관련 행위의 가담 여부를 조사한 보고서를 법이 제정된 이후 90일 이내에 “상원 또는 하원의 적합한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 또 조사 결과 북한의 테러 지원이 확인된다면 존 케리 국무장관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거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하지 않을 법적 근거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이 법안에 담김.
- 이 법안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와 관련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발의됨.

2016. 5. 16.

■ 미국무부, 자국민에 또 북한여행경보…부당한 가혹 처벌 우려(연합뉴스)

- 미국인이 북한을 방문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무런 지 않은 행동 때문에 “부당하게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미국 국무부가 다시 경고함.
-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시간) 발표한 여행경보에서 북한으로 여행하는 자국민들에게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어떤 형태의 매체라도 소지했을 경우 북한에서 범죄자 취급을 당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당부함.
- 미국은 지난해 4월과 11월에도 북한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했음.

■ WSJ, 중국 적극 참여에 대북제재 효과…고삐 더 조여야(연합뉴스)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중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 옥죄기’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옴.
-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5일(현지시간) ‘상처받는 평양’이란 제목의 사설에서 북한 ‘젊은 원수’(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체제가 압력을 받고 있다고 설명함.
- WSJ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때 제재가 느슨해진 사례가 있었다”며 “북한 제재가 김정은 정권의 행동 변화를 이끌지에 대해 아직 말하기에는 이른 측면이 있지만 체제 변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제재의 고삐를 더 조여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함.

2016. 5. 17.

■美전문가들, 차기정부에 북한문제 집중 한목소리 주문(연합뉴스)

- 미국에서 약 8개월 뒤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 북한 문제에 대해 이전보다 더 집중해서 관여해야 한반도나 동아시아의 안정뿐 아니라 미국의 이익에도 부합할 것이라고 미국의 동아시아 문제 전문가들이 한목소리로 강조함.

- 캐서린 문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16일(현지시간) 한미경제연구소(KEI)와 한미클럽이 공동으로 주최한 토론회에서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로 여겨지는 전략적 인내가 북한문제 해결에서 “부정적인 외교정책”이었다며, 미국 정부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함.
- 이날 토론회에는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한미클럽 측에서 윤경호 매일경제신문 논설위원과 이상석 전 한국일보 부회장이 참석해 한미동맹 강화 방안과 더불어 북핵 해법 등에 대해 논의함.

2016. 5. 18.

■ 백악관, G7서 북핵 논의…北 안 바뀌면 입기 끝까지 고립시킨다(연합뉴스)

-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일본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문제가 주요 의제로 논의될 것이라고 미국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확인함.
- 백악관은 특히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지 않을 경우 현 행정부 입기 끝날 때까지 고강도 제재에 근거한 고립화 전략을 유지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 핵문제가 G7 정상회의에서 이슈가 될 것임을 확신한다”며 “전 세계가 북한 정권의 도발과 불안정한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힘.

2016. 5. 19.

■ 백악관, 대북압박 불변…北비핵화 약속하면 대화 준비(연합뉴스)

- 미국 백악관은 18일(현지시간) 북한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할 준비가 돼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대북 압박을 지속해나가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조시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한 반응을 묻는 말에 즉답을 피하면서 이같이 밝힘.
- 어니스트 대변인은 “북한과 관련해 대선주자들이 내놓는 발언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약속하고 도발적 언행을 중단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즉시 대북 압박이 완화되고 국제사회도 북한과 대화할 준비를 할 수 있다”고 말함.

■ 북핵 美차기 행정부 최대 의제로 부상…고강도 압박 예고(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입기 내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던 북한 핵문제가 내년 1월 출범할 차기 행정부에서는 최우선 외교어젠다로 부상할 전망이다.

- 민주당의 선두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나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모두 북한 핵문제를 미국의 최대 국가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이를 긴급 의제로 다루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서임.
- 클린턴의 외교총책인 제이크 설리번은 “북핵 문제는 미국에 대한 최고의 국가안보 위협으로서, 다음 대통령이 다루야할 최우선 의제”(16일 아시아소사이어티 강연)라고 강조했고, 트럼프의 외교보좌역인 월리드 프레스는 “북핵 문제는 매우 크고 심각하다”며 “버락 오바마 행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하지 못했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다(13일 연합뉴스 인터뷰)”고 주장함.
- 반면 트럼프 캠프는 동맹·우방을 주축으로 현행 압박기조를 이어가면서 중국을 이용해 북한의 핵포기를 이끌어 낸다는 ‘이중제북’(以中制北) 전략을 제시하고 있음. 그러나 구체적인 복안이 없는 데다가 트럼프 본인의 발언이 오락가락한 탓에 정책적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

■ **美전문가 “트럼프-김정은 만남, 北핵보유국 인정하는 꼴”(연합뉴스)**

- 한반도 전문가인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이 18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의 김정은 만남 구상을 매우 나쁜 생각이라고 비판함.
-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는 행위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이유에서임.
- 그린 부소장은 북한 정상과의 만남을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점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사례를 들어서도 설명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첫 대선 후보 당시 김정은과의 무조건적인 만남을 약속했다가 대통령 취임 후 검토 끝에 뜨거운 감자가 될 것이라며 취소함.

2016. 5. 20.

■ **미국 하원, 국방예산법에 한반도 비핵화 지지 외교정책 명시(연합뉴스)**

- 미국 하원이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하는 것이 미국의 외교정책임을 국방예산법에 명시함.
- 19일(현지시간) 미국 하원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아 테드 루(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발의한 국방예산법 수정안이 이날 하원 본회의를 통과함. 국방예산법의 공식 명칭은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NDAA)으로, 국방부 산하 각 부처·기관에 예산 지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루 의원은 법안 통과 후 성명을 통해 “공화당 대선 후보의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과 대비되게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민주당과 힘을 합쳐 미국의 한반도 비핵화 지지를 공식 정책으로 확인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는 것이 기쁘다” 밝힘.

나. 북·중 관계

2016. 5. 16.

■ 주중 북한대사관서 노동당 대회 경축연회…中 왕자루이 참석(연합뉴스)

- 북한이 16일 중국 베이징의 주중 북한대사관에서 북한의 제7차 노동당 대회 개최를 축하하는 행사를 가짐.
- 신화통신은 이날 왕자루이(王家瑞·67)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政協) 부주석이 초청을 받아 북한대사관에서 열린 당대회 경축행사에 참석했다고 단 한 문장으로 전함.

■ 中 기자의 눈에 비친 북한…스스로 대국·강국 갈망(연합뉴스)

- 북한 노동당 제7차 당대회 취재차 8일간 평양에 머물렀던 중국 기자의 눈에는 북한이 스스로 대국과 강국이 되기를 갈망하는 것으로 비쳐짐.
- 중국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는 16일 지난 5일부터 8일 동안 평양을 취재하고 돌아온 자사의 바이윈이(白雲怡) 기자의 평양취재기를 통해 이같이 보도함. 신문은 “국토 면적이 작은 많은 국가는 특정 대국의 동맹이 되는 것이 합리적인 생존의 길로 여기지만 북한은 이와는 달랐다”며 복잡한 정세 속에서도 스스로 대국, 강국이 되려고 갈망하고 있었다고 전함.
- 환구시보는 그러면서 ‘자주’, ‘자강’, ‘강국’이 북한 정부가 제7차 당 대회 기간 외국 기자에게 보낸 또 다른 메시지였다고 평가함.

2016. 5. 18.

■ 中, 김정은과 대화 트럼프 발언에 북미 대화 지지(연합뉴스)

- 중국 정부는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북핵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북·미 간 직접 대화와 소통을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임.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8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중국은 북·미 간 직접적 대화와 소통이 유익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같은 입장을 밝힘.
- 홍 대변인은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견지, 한반도 평화·안정 수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란 입장을 시종일관 견지하고 있다”며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3원칙을 재차 강조함.

2016. 5. 19.

■ **북한 고위 지도자, 트럼프와의 대화 나뉠 것 없다(연합뉴스)**

- 북한의 고위 지도자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되든 상관하지 않는다고 밝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양형섭 부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AP통신의 영상 서비스인 APTN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처럼 우리를 억압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상관없다”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함.
- 이날 인터뷰는 미국 공화당의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대화할 의사가 있다고 밝힌 뒤에 나온 입장으로 주목됨.

■ **오바마 임기내 북핵협상 물건너가…차기행정부서 최우선 의제(연합뉴스)**

- 내년 1월 종료되는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 임기 내에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정책적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어짐.
- 백악관이 최근 임기 끝까지 대북압박 기조를 고수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북핵정책을 총괄하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주필리핀 대사로 지명됐기 때문임.
-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17일(이하 현지시간)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행정부 임기 내 대북정책이 변화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오로지 북한에 달려 있다”며 “북한이 비핵화 의무를 이행할 준비를 하기 전까지는 북한은 지금의 고립 상태를 계속 겪게 될 것”이라고 밝힘. 임기가 끝날 때까지 현행 압박 기조를 그대로 유지해나간다는 메시지임.

■ **북한 방문한 외신기자, 관리·주민들 중국에 피해망상(연합뉴스)**

- 최근 북한을 방문한 외신기자가 “북한이 중국에 대한 피해망상을 드러내고 있다”고 전함.
-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시간) 이런 제목의 칼럼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정부 관계자부터 일반 시민까지 모두 과거 국경을 넘어선 동지에 대한 뿌리 깊은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라고 밝힘.
- 모든 인터뷰에는 북한 감시원이 따라붙어 누구도 자유롭게 진짜 생각을 말할 수는 없었다며, 이들이 드러낸 중국에 대한 분노가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는 북한 당국의 승인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라고 신문은 덧붙임.

다. 북·일 관계

2016. 5. 15.

■ 北 제재선박, 日근해 재출몰...정부, 관련동향 주시(연합뉴스)

- 유엔 안보리의 제재대상에 오른 뒤 귀항하거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던 북한 선박들이 최근 일본 근해 등에 출몰하자 정부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음.
- 연합뉴스가 15일 안보리의 제재 대상인 북한 원양해운관리회사(OMM) 소속 선박 27척의 위치를 민간선박 정보 사이트 ‘마린트래픽’을 통해 확인한 결과 화물선 4척이 최근 한 달 이내에 북한이 아닌 주변국 인근 해역을 항해한 기록이 나타남.
- 정부 관계자도 이들 선박의 외국 항구 입항 여부와 관련해 “아직 그런 것을 들은 것은 없다”며 “계속 운항 활동을 하던 이들 선박이 (북한 항구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새로운 현상”이라고 말함.

2016. 5. 16.

■ 北도발에 日여당서 ‘기지 타격능력 갖추자’ 주장 대두(연합뉴스)

- 핵 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최근 북한의 도발이 이어진 가운데 일본 여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을 보유하자는 주장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음.
- 적 기지 공격능력은 미사일 발사 기지를 비롯해 적국의 기지나 거점을 공격할 수 있는 순항미사일과 같은 장비를 갖추는 걸 의미함.
- 일본 정부는 올해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의 수정할 계획이며 이를 계기로 정부·여당 내에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반영하려는 시도가 있을지 주목됨.

라. 북·러 관계

2016. 5. 15.

■ 북한, 억류 러 요트 이틀 만에 석방...어부들이 오해로 나포(연합뉴스)

- 한국에서 열린 국제 요트 경주대회에 참가한 뒤 본국으로 돌아가다 북한 당국에 배와 함께 억류됐던 러시아 요트 선수들이 풀려남.
- 북한 함경북도 청진 주재 러시아 총영사 유리 보츠키야코프는 15일(현지시간) 자국 타스 통신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같이 확인함.
- 요트 안에는 모두 5명의 선수가 타고 있었으며 모두 무사하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전함.

2016. 5. 19.

■ **러 전문가, 北 핵보유국 지위 국제사회 인정 못받을 것(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천명하고 국제사회가 이를 인정해 주길 요구하고 있지만 그같은 북한의 태도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러시아 전문가가 밝힘.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국제경제 및 국제관계연구소’(IMEMO)의 알렉산드르 페도롭스키 아태지역 실장은 18일(현지시간) 연구소 사이트에 올린 글에서 이달 6~9일 열린 북한 노동당 제7차 대회 결과를 평가하면서 이같이 지적함.
-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핵개발-경제 발전 병진’ 노선을 추구하겠다는 북한 지도부의 전략이 성과를 낼 가능성은 작다”면서 “북한 지도부는 당 대회에 앞서 당면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 해결책을 찾으려는 과제도 설정하지 않았지만 바로 사회·경제 문제야말로 북한 정권이 앞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문제”라고 강조함.

2016. 5. 20.

■ **러 장관, 나진-하산 프로젝트 대북 제재 영향 안 받을 것(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 간 복합물류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한국 측의 불참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러시아 극동 개발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밝힘.
-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극동개발부 장관은 이날 러시아 남부도시 소치에서 열린 러시아-아세안(ASEAN)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자들로부터 나진-하산 프로젝트 관련 질문을 받고 “러시아와 북한 간의 선도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제재 이행으로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함.

■ **스위스 이어 러시아도 대북 금융거래 전면금지(연합뉴스)**

- 스위스가 강력한 대북제재에 동참한 데 이어 러시아도 대북 금융 제재 조치를 실행하고 나섬.
- 러시아 중앙은행은 19일 자국 금융기관에 사실상 북한과 금융거래를 전면 중단할 것을 통보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앞서 스위스도 북한 관련 자산 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감.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2016. 5. 18.

■ 시에라리온 “제재 대상 北선박 2척, 이제 우리 선적 아니다”(연합뉴스)

- 시에라리온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 가운데 시에라리온 선적이었던 2척에 대해 이제는 자국의 배가 아니라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8일 보도함.
- 이 방송에 따르면 최근 시에라리온 해사부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에버 브라이트 88호'와 '사우스힐 2호'의 상태를 묻자 “해당 선박들은 더는 시에라리온 선적이 아니다”라고 밝힘.
- 안보리 결의 2270호에 명시된 OMM 소속 선박 가운데 최근 필리핀 당국에 압류됐다 풀려난 ‘진텅호’를 비롯해 상당수가 편의치적 방식을 통해 시에라리온에 등록됐던 것으로 알려짐.

2016. 5. 19.

■ 스위스, 자국내 북한 자산 동결…대북 독자제재(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가 강력한 금융제재가 포함된 포괄적 대북 독자제재를 전격 단행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이 19일 보도함.
- 스위스 연방정부가 지난 18일 오후 6시(현지시간)를 기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 새 대북제재는 스위스 내 모든 북한 관련 자산의 동결, 금융 서비스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노동당을 포함한 북한당국이 스위스 은행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됨. 다만, 북한 공관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이번 조치에서 제외함.
- RFA는 “이번 스위스 정부의 조치가 금융, 수출입, 선박·항공기 운항,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그 대상과 폭이 광범위하고 강력하다”고 평가함.

■ EU, 대북 추가 제재…개인 18명·단체 1개 신규 제재(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를 단행함.
- EU 각료이사회는 19일(현지시간) 북한 제재대상 리스트에 개인 18명과 단체 1개를 추가했다고 밝힘.
- 각료이사회 성명은 추가 제재 대상에는 북한의 핵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고위급 군부 인사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단체가 포함됐다고 전함.

바. 군사 및 핵·미사일

2016. 5. 18.

■ 38노스 “북한, 당대회 기간에도 SLBM개발 계속”(연합뉴스)

- 북한이 제7차 노동당대회 기간이던 지난 8일에도 잠수함용 탄도미사일(SLBM) 개발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남.
- 북한 군사문제 전문가인 조지프 버뮤데스 연구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 기고문에서 북한 함경남도 신포의 SLBM용 잠수함 전용 부두의 지난 8일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 26일 이후 종종 나타났던 잠수함 덮은 위장망이 다시 나타났다”며, 이 위장망이 “잠수함에서 진행중인 활동을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함.
- 버뮤데스 연구원은 최근 SLBM 잠수함 전용 부두의 한쪽 끝으로 밀려났던 미사일 사출시험용 바지선이 다시 잠수함 북쪽으로 가깝게 배치됐고, 예인용으로 보이는 선박도 이 바지선에 붙어 있었다고 설명함. 38노스는 지난해 12월 북한에서 SLBM 발사실험을 했을 때 잠수함이 아닌 수중 바지선에서 발사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추정했음.

■ 北 충격요법식 대남 도발로 ‘게임체인지’ 시도할 것(연합뉴스)

- 제7차 당 대회를 끝낸 북한이 충격요법식 대남 도발을 통해 국면을 전환하는 ‘게임체인지’를 시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
-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기획본부장은 현대북한연구회와 한국평화연구학회가 18일 오후 동국대에서 ‘김정은 체제와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공동 학술회의에서 이런 견해를 밝힘.
- 이창희 동국대 북한학연구소 연구교수는 북한의 당 대회 이후 경제정책전략에 대해 “개혁적이었다고 평가한다”며 “핵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북한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세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2016. 5. 19.

■ 군사 전문가 “北, 노동미사일 탑재용 핵무기 경량화 가능성”(연합뉴스)

- 북한이 핵무기 경량화(소형화)에 성공했다면 노동미사일 탑재용으로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군사 전문가의 분석이 나옴.
- 이연수(예비역 소장) 전 방공유도탄사령관은 19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창립 10주년을 기념해 서울 국방컨벤션에서 개최하는 ‘국가전략세미나’에 앞서

발표문을 통해 파키스탄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기술 커넥션을 근거로 이같이 주장함.

- 김태우 건양대 교수는 ‘북핵 고도화와 한국의 핵 선택’이란 발표문에서 “북한은 앞으로 10년 후 50기 이상의 핵무기를 배치하고 비축하며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 (SLBM)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실전 배치할 것”이라며 “북핵 제재 성과와 추가 도발에 따라 핵무장 A플랜, 핵무장 B플랜을 추진해야 하고 지금부터 이 플랜 추진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함.

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정세

■ 개요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5.15		북 위협 아주 위험하다 판단해 시드 배치 필요성 논의(연합뉴스)
	5.16	軍 올 여름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 추적훈련(연합뉴스)	
	5.18		美태평양사령관 북한 위협 가장 큰 위험... 한미일 협력 중요(연합뉴스)
	5.19		백악관 히로시마 방문 한국인 포함해 모든 희생자 기리려는것(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5.16		中,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훈련 반발...상황 악화 행동 말리(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5.15		日언론, 지일파 비서실장 교체 韓대일외교에 영향 주목(연합뉴스)
	5.16		日 "이병기 前실장 사임, 한일합의에 영향 안 줄 것"(연합뉴스)
	5.17	한일 위안부재단 논의 진전...조속한 시일 내 설립 목표(연합뉴스)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일 비관세장벽 개선하자"(연합뉴스)	고노 위안부 합의는 한일 지도자의 용단이 자결단(연합뉴스)
	5.18		日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주최로(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5.15	한 러 손잡고 재난대응 강화...협력회의 정례 개최(연합뉴스)	

5.18	한국-러시아 전문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두고 격론(연합뉴스)
5.19	북핵 해결 위한 공공외교 질살...한-러 관계 관리해야(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 개요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5.15	美국정부,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9년 만에 언급(연합뉴스)	
	5.17		中왕이 美케리와 전화통화...하나의 중국 준수 촉구(연합뉴스)
	5.18	美의회, 대만 지원정책 인변한다...中, 내정 간섭 취소하라(연합뉴스)	
	5.19	美위싱턴서 미-중 '남중국해' 여론전 후끈(연합뉴스)	
	5.19	美中 남중국해서 또 일촉즉발...中, 美정찰기에 15m 초근접(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5.15		日 언론, 오바마 히로시마행은 판도라의 상자(연합뉴스)
			일본이 미국에 원폭 사과 요구하지 않는 이유(연합뉴스)
	5.16	미국-일본 인도, 내달 동중국해서 연합훈련...중국 견제(연합뉴스)	
	5.16	오바마, 히로시마서 피폭 피해자 면담 안할 듯(연합뉴스)	히로시마시민단체 "오바마, 원폭투하 사죄 하길"(연합뉴스)
	5.18	오바마 '히로시마 메시지, 개인적 요소 강할 것(연합뉴스)	
	5.18	백악관대변인 "오바마, 사죄안해...미일관계 중요성 강조 기회로"(연합뉴스)	

			아베도 신경쓰나..트럼프도 미일관계 중 요성 이해하겠지(연합뉴스)
	5.19	오바마측근 “오바마, 히로시마서 도의적 책임 언급..시죄 야냐(연합뉴스) 원폭투하후 파괴력 분석한 美자료, 히로 시마에 기증된다(연합뉴스)	
	5.20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 평화공원서 현 화 후 짧은 투어(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5.16		라 벨라루스, 미국의 유럽MD에 공동 대응 합의(연합뉴스)
	5.20		러, 미국에 시리아 내 테러세력 근거지 연합 공습 제안(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5.17		중국통 주중 일본대사, 새로운 중일관계 구 축 필요(연합뉴스)
		중국, G7 정상회의로 中 견제 나선 日에 경 고음(연합뉴스)	
	5.18		일본 방위성 대규모 ‘중국연구실’ 설치... ‘군사굴기’ 견제(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5.18		크렘린궁 “푸틴 올해 안에 일본 방문할 수 도”(연합뉴스)
	5.20		러시아, 일본 고향방문단의 “북방영토” 방 문 불허(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6. 5. 15.

■ 북 위협 아주 위험하다 판단해 사드 배치 필요성 논의(연합뉴스)

-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실제적이고 아주 위험하다고 판단해 한국과 미국 정부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는 필요성에 논의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15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제주대학교 관광경영학과 학생 7명과 함께 표선항 방파제까지 걸어가 대화하던 중 한 학생의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질문에 이같이 답함.
- 리퍼트 대사는 “미국은 이미 북한의 미사일을 의식해 괌에 사드를 배치했다”며 “사드가 많지 않고 굉장히 비싼 기기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 국민과 주한 미군, 여러 재산을 보호하는데 한반도에서 많은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의하게 됐다”고 설명함.

2016. 5. 16.

■ 軍, 올 여름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추적훈련(연합뉴스)

- 국방부는 오는 6~8월 하와이에서 열리는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을 계기로 미국·일본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올해 림팩 훈련 계기로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을 실시하기로 하고 세부 훈련 계획을 준비 중에 있다”고 밝힘.
- 이 관계자는 “이번 훈련은 2014년 12월 체결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고 말함. 한·미·일 미사일 경보훈련은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의 훈련으로, 요격 훈련은 이뤄지지 않을 것임.

2016. 5. 18.

■ 美태평양사령관, 북한 위협 가장 큰 위협…한미일 협력 중요(연합뉴스)

- 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17일(현지시간) 북한의 위협을 가장 큰 위협으

로 규정하면서 한·미·일 3각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울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필요성도 거듭 역설함.
- 한미일 3국이 ‘환태평양합동군사훈련’(림팩) 시작 직전인 6월 28일 하와이 인근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첫 미사일 경보 훈련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선 “함께 협력함으로써 각자가 갖춘 능력을 파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번 훈련은 우리가 관련 능력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리고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함.

2016. 5. 19.

■ **백악관, 히로시마 방문 한국인 포함해 모든 희생자 기리려는것(연합뉴스)**

-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태 담당 선임보좌관은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히로시마 방문에 대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를 비롯한 모든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려는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밝힘.
- 크리튼브링크 보좌관은 이날 워싱턴DC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 방문 가능성을 묻는 말에 구체적인 언급을 삼간 채 이같이 말했음.
-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26일부터 이틀간 미에현 이세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히로시마로 이동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본 내 한국인 원폭 피해자와 국내 피해자 및 관련 단체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한국인 희생자 위령탑 참배를 촉구하고 있음.

나. 한·중 관계

2016. 5. 16.

■ **中, 한미일 北미사일 탐지훈련 반발...상황 악화 행동 말라(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한국과 미국, 일본이 다음 달 사상 처음으로 북한의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미사일 경보 훈련을 실시하기로 한 데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반도(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복잡하고 민감하다. 우리는 현 상황에서 각방(각국)이 충분히 냉정과 자제를 유지하고 (긴장) 상황을 끌어올리는 행동을 하지 말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또 “우리는 유관 각방이 중국이 제안한 비핵화 협상과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전환 협상이란 ‘투트랙’ 병행 추진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할 것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2016. 5. 15.

■ **日언론, 지일파 비서실장 교체 韓대일외교에 영향 주목(연합뉴스)**

- 일본 언론은 15일 교체돼 물러난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일대사를 지낸 지일파였다며 향후 한국 정부의 대일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목함.
- NHK는 “이 실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지일파 측근으로 군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협상에도 깊이 관여했다”며 “개선 방향으로 진행돼온 한국의 대일 외교에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고 보도함.
- 대사 재임 기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 아베 총리의 외교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内正太郎) 국가안보국장 등과 긴밀한 소통 채널을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음.

2016. 5. 16.

■ **日 “이병기 前실장 사임, 한일합의에 영향 안 줄 것”(연합뉴스)**

- 일본 정부는 ‘지일파’로 평가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임이 그가 관여한 한일 군위안부 합의 이행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실장의 사임이 한일합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질문받고서 “이 전 실장은 주일대사 시절을 포함해 일한관계에 다대한 공헌을 한 분이라고 인식한다”며 “그러나 이번 사임이 일한 합의(위안부 합의)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스가 장관은 “일한 양국 정부가 지난해 합의를 책임지고 실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임.

2016. 5. 17.

■ **한일 위안부재단 논의 진전...조속한 시일 내 설립 목표(연합뉴스)**

- 작년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한 군위안부 지원 재단 설립 논의에 진전이 있었다고 한국 정부 당국자가 17일 밝힘.
-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은 이날 도쿄 외무성 청사에서 이시카네 기미히로(石兼公博)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2시간여 협의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재단 설립 논의에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보아도 무방하다”고 답함.
- 정 국장은 “작년말 위안부 합의의 후속조치를 포함한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했다”며 “재단 문제를 집중 협의했고, 양국 국장(급) 차원에서 위안부

합의를 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함.

■ **고노, 위안부 합의는 한일 지도자의 용단이자 결단(연합뉴스)**

-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일본 관방장관은 작년말 도출된 한일 군위안부 합의에 대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윤리관에 선 결단이며 미래에 대한 책임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의 용단”이라고 평가함.
- 고노 전 장관은 17일 서울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한일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회의 개막 축사를 통해 고노 전 장관에 대해 “위안부 문제에서 용기를 갖고 사죄를 표명했다”고 평가함.

■ **주형환 산업부 장관 “한일, 비관세장벽 개선하자”(연합뉴스)**

-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일본 도쿄에서 하야시 모토오(林幹雄) 경제산업상과 만난 자리에서 “한일 간 비관세장벽을 개선해 교역 확대를 추진하자”고 제안함.
- 주 장관은 이날 오후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하야시 경산상과 만난 자리에서 “검역, 인증, 표준 등 규제 분야에서 상호 조화를 이루고, ‘신(新) 산업’ 분야의 국제표준을 주도하자”며 이같이 말했다고 배석한 산업부 당국자가 전함.
- 주 장관은 2012년 이래 한일 교역액이 30% 이상 감소하고 일본의 대(對) 한국 투자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지적한 뒤 “양국 간에 상호 투자 및 교역 확대를 통해 경제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2016. 5. 18.

■ **日시마네현, ‘다케시마의 날’ 중앙정부 주최로(연합뉴스)**

- 일본 시마네(島根)현은 2월 22일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의 날’ 행사를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개최할 것을 아베 내각에 요청함.
- 교도통신에 의하면 시마네현 미조구치 젠베에(溝口善兵衛) 지사는 18일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영토문제담당상과 도쿄 내각부에서 만나 이 같은 요청을 담은 요망서를 전달함.
- 미조구치 지사는 독도 문제와 관련한 여론 계몽, 국제사회에 대한 정보 제공 등도 요구함.

라. 한-러 관계

2016. 5. 15.

■ 한-러, 손잡고 재난대응 강화…협력회의 정례 개최(연합뉴스)

- 국민안전처는 한국과 러시아가 '재난안전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블라디미르 푸추코프 러시아 비상사태부 장관과 10일 모스크바에서 만나 양국 간 재난대응 분야 정책과 기술 공유를 확대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함.
- 이번 업무 협약으로 우리나라는 풍부한 재난대응 노하우가 있는 러시아의 선진 재난관리 정책과 기술을 공유할 수 있게 됨. 러시아는 폭설, 원전사고, 운석 낙하 등 특수한 재난이 종종 발생하며 31개 인공위성을 활용해 재난관리를 하고 있음. 우리나라는 IT 기술에 기반을 둔 재난 발생 예·경보 분야 노하우를 공유할 예정임.

2016. 5. 18.

■ 한국-러시아 전문가 북핵 문제 해결 방안 두고 격론(연합뉴스)

- 한반도 긴장 상황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과 러시아 전문가들이 한반도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임.
- 국민대 유라시아 연구소와 러시아 대통령 행정실 산하 전략연구소가 17일(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공동 주최한 '동북아의 지정학적 격변과 한-러 관계'를 주제로 한 국제세미나 자리에서임.
- 글렘 이바센초프 전(前) 주한 러시아 대사는 이날 발표에서 “핵을 정권 유지 수단이 아닌 대내적 선전 수단으로 생각하는 북한이 미국과의 관계 회복과 정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안전 보장 없이 핵무기를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은 없다”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강하게 주장함.
- 이에 대해 정태익 전 주러 한국대사는 “북핵 해결을 위한 협상으로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새로운 합의를 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회의론을 제기하면서 “9.19 공동성명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가장 좋은 해법이긴 하나 북한이 공동성명의 합의를 어기고 계속 핵실험을 하며 문제를 일으킨 것이 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로까지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함.

2016. 5. 19.

■ 북핵 해결 위한 공공외교 절실…한-러 관계 관리해야(연합뉴스)

-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제사회에 한반도 비핵화의 필요성을 알리는 공공외교를

- 확대해야 하며, 특히 러시아와의 관계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엄구호 한양대 교수는 18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2016 한·러 차세대 정책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에서 ‘북핵 대북 제재 이후 한·러 협력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북핵 해결을 위한 국제 협력에서 대중(對中) 외교를 어떻게 할지가 중요하지만 한·러 관계를 관리하지 않고는 대중 외교의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힘.
 - 또 “북핵 제재가 북한 정권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핵화를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공공외교도 절실하다”고 말함.
 - 이날 포럼에는 양국 대학교수와 정책 연구원 등 30여 명이 참가해 양국 외교·안보·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함. 참가자들은 이번엔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경제 현안을 공동 연구해 오는 7월께 한국에서 다시 머리를 맞댈 예정임.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6. 5. 15.

■ 미국방부, 대만 독립 지지하지 않는다, 9년 만에 언급(연합뉴스)

- 미국이 9년 만에 처음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짐.
- 미국 국방부는 지난 13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2015년 중국의 군사활동’ 연례보고서에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현 상태의 어떠한 일방적 변화에도 반대하며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명보(明報)와 대만중앙통신(CNA) 등이 15일 보도함.
- 이번 보고서는 대만과 양안 사정에 정통한 에이브러햄 덴마크 미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주도한 것으로 전해짐.

2016. 5. 17.

■ 중왕이,美케리와 전화통화…‘하나의 중국’ 준수 촉구(연합뉴스)

-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이 20일로 예정된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 당선인의 취임식을 앞두고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을 향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준수할 것”을 촉구함.
-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 부장은 전날 케리 장관의 요청으로 이뤄진 전화통화에서 “미국이 ‘하나의 중국’ 정책을 견지하고 중·미 간의 ‘3개 공동성명’을 엄수함으로써 대만 문제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을 희망한다”고 말함.
- 이 발언에는 대만 독립 성향의 민진당 정권 출범 이후 미국이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에 개입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던진 경고성 메시지가 담긴 것으로 분석됨.

2016. 5. 18.

■ **美의회, 대만 지원정책 안변한다...中, 내정간섭 취소하라(연합뉴스)**

- 20일 차이잉원(蔡英文) 신임 총통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 정부는 중국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재확인해줬으나, 미국 의회는 대만 체제에 대한 지지 의사를 공식화함.
-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내정간섭'이라고 반발하며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함.
- 한편, 워싱턴에 본부를 둔 대만권의 단체인 대만인공공사무회(FAPA)는 이번 결의안에 대해 “차이잉원(蔡英文) 총통 취임을 앞둔 시기에 대만의 자유, 인권, 민주 체제를 축하해주는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말함.

■ **美워싱턴서 미·중 '남중국해' 여론전 후끈(연합뉴스)**

-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중국의 주권과 합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주 하이관 주미 중국대사관 대변인)
- 미국 워싱턴D.C.를 무대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여론전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음. 필리핀이 중국을 상대로 제기한 남중국해 관련 국제재판소의 분쟁조정 결정이 한달 내로 다가올 것으로 알려지면서 서로를 향한 비난의 열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
- 남중국해 문제를 놓고 미·중 양국 간에 대화 채널이 없는 것은 아님. 조지프 던포드 미군 합참의장과 팡펑후이(房峰輝) 중국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 참모장(합참의장 격)은 12일 밤 화상회의를 통해 남중국해 문제를 효율적으로 통제해 나가자는데 뜻을 모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말뿐이고 실제 양쪽 사이에는 대립과 충돌의 기류가 더 고조되고 있다는 관측이 우세함.

2016. 5. 19.

■ **美·中 남중국해서 또 일촉즉발...中,美정찰기에 15m 초근접(연합뉴스)**

- 미국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음.
- 중국 전투기가 남중국해에서 미국 정찰기에 15m까지 근접해 위험한(unsafe) 비행을 하며 진로를 방해했다고 미국 국방부(펜타곤)가 18일(현지시간) 밝힘.
-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동남아시아 이해국들과 갈등을 벌이는 가운데 인공섬 건설, 각종 첨단무기 배치 등을 통해 영유권 강화 행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음. 미국은 이에 항행의 자유를 수호한다며 항공모함, 전투기 등 첨단무기를 동원한 순찰 등으로 중국을 강하게 견제하고 있음.

나. 미·일 관계

2016. 5. 15.

■ 日 언론, 오바마 히로시마행은 판도라의 상자(연합뉴스)

- 오는 27일 일본의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원폭 투하에 대한 사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입장임.
- 이런 입장은 단지 오바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전쟁 책임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것을 우려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진심'일 것이라는 견해가 일본 주류 언론에서 나옴.
-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의 오이시 이타루(大石 裕) 편집위원은 15일자 신문에 실은 기명 칼럼에서 “일본 정부가 사죄 문제에 신경을 쓰는 것은 히로시마에서 오바마에게 사죄를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것이 아니다”고 적음. 오이시 편집위원은 “일본은 정말로 전쟁 책임을 반성했는가”라며 “아베 총리는 지난해 여름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에서 결말지은 난제(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사죄 문제)가 되살아 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전함.

■ 일본이 미국에 원폭 사과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한 가운데 일본 정부는 미국에 원폭에 대한 사죄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음.
- 이는 원폭이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미국 측의 해석이나 미국 참전군인 등을 의식해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음.
- 일본 정부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미국 언론은 그가 히로시마를 방문하는 행위 자체를 일본인이 사과의 제스처로 받아들일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음.

2016. 5. 16.

■ 미국·일본·인도, 내달 동중국해서 연합훈련…중국 견제(연합뉴스)

- 미국·일본·인도 3국이 다음 달 일본 오키나와(沖縄) 해역에서 연합훈련을 한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6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이 훈련은 미국·인도의 연합훈련인 '말라바르(Malabar)'에 일본 해상자위대가 참가하는 형태로 이뤄짐.
- 이번 훈련은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釣魚島>) 열도와 관련,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비친다는 점에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됨.

■ **히로시마시민단체 “오바마, 원폭투하 사죄하길”(연합뉴스)**

- 일본 히로시마(廣島)의 시민단체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27일)을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한다고 16일 밝혔다.
- 교도통신에 의하면, ‘핵무기 폐기를 목표로 하는 히로시마의 모임’(HANWA·이하 모임)은 원폭 투하가 잘못이었음을 인정하고 사죄할 것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요청문을 백악관으로 송부한다고 발표함.
- 모임의 모리타키 하루코(77) 공동대표는 이날 히로시마 시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피해 현장을 접하고, 처음 고통을 실감함으로써 (오바마 대통령은) 자신의 행동의 원점으로 삼기 바란다”고 말함.

■ **오바마, 히로시마서 피폭 피해자 면담 안할듯(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원자폭탄 투하 지역인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도 피폭 피해자들을 면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16일 전함.
- 신문은 미 정부 당국자가 오바마 대통령의 피해자 면담 여부에 대해 “최종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시간의 제약이 있어서, (면담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했다며 이같이 전망함.
- 오바마 대통령은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폐막일인 27일 오후 히로시마로 이동해 수 시간 머물 예정임.

2016. 5. 18.

■ **오바마 ‘히로시마 메시지’, 개인적 요소 강할 것(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일본의 피폭지인 히로시마(廣島)에서 내놓을 메시지는 “개인적인 요소가 강할 것”이라고 그의 측근 보좌관이 전망함.
- 요미우리,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하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행한 강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에서 “대대적이고 장대한 정책 연설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함.
- 한편, 일본 원폭·수폭 피해자단체협의회는 오바마 대통령이 피폭자의 말을 직접 듣고, 피폭 관련 자료를 직접 참관할 것을 요구하는 요망서를 주일 미국대사관과 백악관에 보냈다고 NHK가 보도함.

■ **백악관대변인 “오바마, 사죄안해…미일관계 중요성 강조 기회로”(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원자폭탄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하지만 “사죄는 안 한다”고 조지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이 밝힘.
- 18일 보도된 산케이(産經)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일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회로 삼기를 바라고 있으며 미·일이 강력한 관계를 만든 것이 지역이나 세계에 얼마나 중요한지 말할 것”이라고 히로시마 방문에 담긴 오바마 대통령의 의도를 설명하고 이같이 선을 그음.

- 어니스트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인 미국이 특별한 책임을 지닌 것을 인정한 최초의 대통령이고 그 책임을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번 방문을 제2차 대전으로 목숨을 잃은 죄 없는 사람들에게 바친다”고 강조함.

■ 아베도 신경쓰나…트럼프도 미일관계 중요성 이해하겠지(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미국 대선 공화당 후보로 확실시되는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그도 어쨌든 일본·미국 관계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않겠는가”라는 언급을 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8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일본은 방문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식사를 하며 이같이 발언했다고 관계자가 전함.
- 아베 총리의 이런 발언은 트럼프가 미일안보조약을 개정해 미군이 일본에 주둔하는 비용을 일본이 내도록 요구하겠다는 발언을 반복한 것 등을 의식한 것으로 보임.

2016. 5. 19.

■ 오바마측근 “오바마, 히로시마서 도의적 책임 언급…사죄 아냐”(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원폭 투하지인 일본 히로시마(廣島)를 방문해 미국의 도의적 책임을 거론할 것이라고 측근인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이 밝힘.
- 그는 19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핵무기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서의 도의적 책임을 언급할 것이다”며 “핵 없는 세계를 향해 장래의 핵 사용을 막고 핵의 역할을 줄여나갈 것이다”고 말함.
- 로즈 부보좌관은 “전쟁이 죄 없는 다수의 목숨을 빼앗고 원폭이 굉장한 희생을 낳은 것을 이해하고 있다”며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세상을 떠난 모든 사람을 추도하고 전쟁의 희생자에게 애도의 뜻을 표명할 것이다”고 설명함. 하지만 그런 행위가 사죄는 아니라고 선을 그음.

■ 원폭투하후 파괴력 분석한 美자료, 日히로시마에 기증된다(연합뉴스)

- 2차대전 때 미군이 일본에 원자폭탄을 투하한 뒤 파괴력을 분석한 사진 자료들이 히로시마(廣島) 평화공원내 원폭자료관에 기증된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9일 보도함.
- 미국 원폭 개발 계획을 주도한 고(故) 레슬리 그로브스 장군이 당시 트루먼 정권

(1945~1953년 집권) 간부에게 원폭 투하의 파괴력을 설명하기 위해 만든 사진 패널집을 히로시마 원폭자료관에 기증할 것이라고 자료를 소장중인 미국 싱크탱크 스티븐센터가 18일 밝힘.

- 총 24장으로 구성된 사진 패널집에는 원폭 투하 전후의 히로시마·나가사키(長崎) 상황을 담은 항공사진과 그 사진에 대해 분석한 내용 등이 담겨 있음.

2016. 5. 20.

■ **백악관 “오바마, 히로시마 평화공원서 현화 후 짧은 투어”(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달 말 일본 히로시마 평화공원 방문 때 현화와 함께 짧은 투어도 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19일(현지시간) 밝힘.
-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부보좌관은 이날 백악관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전화회의)에서 이 같은 일정을 공개함.
- 로즈 부보좌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현화한 후 짧은 투어를 하고 그다음에 자신이 받은 인상에 관한 짧은 언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함.
- 로즈 부보좌관은 히로시마 방문을 둘러싼 사죄 논란에 대해 “사죄를 하는 그런 방문이 아니라는 점을 밝혀왔다”고 일축하면서 “우리가 히로시마에서 하려는 것은 전쟁의 참혹한 고통과 무고한 희생자들을 기리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함.

다. 미·러 관계

2016. 5. 16.

■ **러·벨라루스, 미국의 유럽MD에 공동 대응 합의(연합뉴스)**

- 러시아와 동맹국인 벨라루스가 미국이 구축 중인 유럽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고 벨라루스 외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밝힘.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무장관은 이날 자국 수도 민스크를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회담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소개함.
- 마케이 장관은 “벨라루스와 러시아는 미국의 유럽 MD에 대해 공동의 우려를 갖고 있다”면서 “양국이 함께 적합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함.

2016. 5. 20.

■ **러, 미국에 시리아 내 테러세력 근거지 연합 공습 제안(연합뉴스)**

- 러시아가 시리아 내 테러세력 근거지에 대한 공습을 미국과 함께 실시하자고 제안함.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20일(현지시간) 국방

- 부 회의에서 “오는 25일부터 시리아 내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 시리아 지부) 부대들과 터키-시리아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무장 세력 등에 대해 연합 공습작전을 벌이자고 미국 측에 제안했다”고 밝힘.
- 러시아와 미국은 앞서 지난 4일 시리아 일부 지역에서 시행 중인 휴전을 시리아 정부군과 반군 간 교전이 치열했던 알레포로 확대하기로 합의했으며, 9일 다시 알레포와 다른 도시들의 휴전을 지속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함.

라. 중·일 관계

2016. 5. 17.

■ 중국통 주중 일본대사, 새로운 중일관계 구축 필요(연합뉴스)

- 요코이 유타카(横井裕·61) 신임 주중국 일본대사는 “새로운 시대에 어울리는 일중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중국통 인사로는 6년 만에 주중 일본대사로 임명된 요코이는 17일 아사히(朝日)신문 언론에 보도된 부임 회견에서 중일 정상회담의 조기 실현을 위해 모든 힘을 다 쏟겠다며 이같이 말함.
- 요코이 대사는 “일본·중국이 이웃 나라인 이상 의견 불일치가 있는 것은 피할 수 없다”며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중국 측과의) 의사소통을 피하면서 전체적인 관계가 증진하도록 노력하고 싶다”고 말함.
- 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새로운 대사가 양국 관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을 기대한다”고 논평함.

■ 중국, G7 정상회의로 中견제 나선 日에 경고음(연합뉴스)

- 중국이 이달 말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활용해 자국을 견제하려는 일본을 향해 경고음을 냄.
- G7 순회의장국인 일본은 오는 26~27일 미에(三重)현 이세시마(伊勢志摩)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에 남중국해 문제와 세계적 공급 과잉 문제 등을 의제로 제기해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중국을 겨냥해 한목소리를 내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 “G7 회의는 스스로 정해진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회의에서 논의될 내용은 명확한 한계가 있다”며 “역외국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함으로써 남중국해 주권과 해양권의 문제에서 한쪽의 편에 서서는 안 된다”고 주장함.

2016. 5. 18.

■ **일본 방위성, 대규모 ‘중국연구실’ 설치…‘군사굴기’ 견제(연합뉴스)**

- 일본 방위성 직속의 연구기관이 500여 명의 직원으로 구성된 중국연구실을 설치했다고 중국군 기관지들이 발간하는 반월간지 환구군사(環球軍事)가 일본 언론을 인용해 보도함.
- 18일 관련 보도에 따르면, 일본방위연구소는 지난 4월 지역연구부 산하에 중국연구실을 처음으로 설치하고 마쓰우라 요시히데(松浦吉秀) 전 동북아 연구실장을 실장으로 임명함.
- 일본방위연구소 측은 중국연구실의 주요 기능에 대해 “일본정부, 집권당과 협력해 대중 연구의 전문성을 한층 제고하고, 대중 군사동향과 안보문제에 대한 연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힘.

마. 중·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일·러 관계

2016. 5. 18.

■ **크렘린궁 “푸틴, 올해 안에 일본 방문할 수도”(연합뉴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본 방문이 올해 안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유리 우샤코프 러시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이 17일(현지시간) 밝힘.
- 우샤코프 보좌관은 이날 기자들에게 “이번에는 일본 측과 날짜를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올해 안에 그렇게 되길(방문이 성사되길) 기대한다”고 말함.
- 이와 관련 극동지역 대통령 전권대표를 맡고 있는 유리 트루트네프 부총리는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로 한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 간 회담이 푸틴의 방일을 위한 추가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18일 밝힘.

2016. 5. 20.

■ **러시아, 일본 고향방문단의 “북방영토” 방문 불허(연합뉴스)**

- 러시아가 자국 지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과 영토분쟁 중인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옛 주민과 가족의 현지 방문을 거부해 일본 측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음.
- 20일 NHK에 따르면 러시아 국경경비국은 지난 16일 하보마이(齒舞)군도에 속하는 스이쇼도(水晶島)를 비자없이 방문하려던 옛 섬주민들이 방문지의 러시아 지명인 탄필리에프를 기재하지 않았으며 이를 다시 쓸 것을 요구했으나 방문단이 거부

- 하자 방문을 불허함. 방문단은 서류에 방문지를 일본명인 스이쇼도로 기재함.
- 러시아는 쿠릴열도 각 섬에 러시아 이름을 붙이고 있으나 일본 측은 이들 섬이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러시아 지명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 NHK는 러시아가 그동안 옛 섬 주민과 가족 등의 무비자 고향 방문을 섬의 주권문 제와는 별개로 허용해 왔다고 지적하고 러시아 측이 고유영토임을 주장하는 일본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러시아 지명 기재 등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앞으로 섬 주민 등의 고향 방문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고 전함.

Ⅲ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5.17	칠레서 '북 인권 행사 잇달아(자유아시아방송)
	5.18	유엔 인권최고대표 "北인권, 책임 물을 사람에게 묻게 될 것"(연합뉴스)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다음주 노르웨이 국제인권행사 증언(미국의소리)
	5.19	다루스만 北 상황발생 대비해 다가갈수 있는 준비도 필요(연합뉴스)
5.20	반기문 총장 "북한 도발 중단하고 인권 개선해야"(미국의소리)	
	北인권단체 대표, 북한 주민들 감정을 '정은아'라고 불러(연합뉴스) 여성이 바로 북한변화의 견인차(자유아시아방송)	
북한인권 내부동향	5.15	北 종업원 송환 또 요구... "유엔 돌려보낼 대책 세워야"(연합뉴스)
북한인권 남한동향	5.16	민변, 탈북 北종업원 집견신청 거부당해... 행정소송(연합뉴스)
	5.17	北김정은, 식당종업원 탈북 관련 南에 보복 지시(데일리NK)
	5.19	한국 내 대북지원단체들, 정치 상황 별개로 인도적 지원 계속돼야(미국의소리)
탈북자 이산가족	5.16	탈북자 북중 월경 비용, 1만 달러 이상 치솟아(미국의소리)
남북자 국군포로	5.18	아베, 對北 입력·대화 병행으로 남치문제 해결 전력(연합뉴스)
대북지원	5.19	러시아 지원 밀가루 2천400t 북한 도착(연합뉴스)
	5.20	국제구호단체, 북한에 '영양쌀' 28만3천명분 지원(연합뉴스)
프 NGO, 북한에 단백질·지방 공급 사업(자유아시아방송)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6. 5. 17.

■ 칠레서 '북 인권' 행사 잇달아(자유아시아방송)

-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에 위치한 산티아고대학 한국학센터(University of Santiago at Chile Chilean-Korean Study Center Program)에서 다음달 28일과 29일 북한 인권과 정치, 안보 등에 관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 산티아고대 한국학센터가 올해로 두 번째 개최하는 연례 행사에서 북한의 인권과 핵 문제까지 다뤄질 것이라고 로드리고 알바레스(Rodrigo Alvarez) 한국학센터 선임연구원이 17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알바레스 선임연구원은 다음달 6일 산티아고의 Duoc UC 대학과 한국대사관이 개최하는 한반도 세미나(가제: 한반도의 현재와 전망)에서 북핵 관련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외에 1960년대 김일성 주석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북한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칠레인 에두아르도 무리쥬 우가르테(Eduardo Murillo Ugarte)씨의 북한인권 강연도 있을 전망이다. 또한 한국대사관은 북한정치범 수용소 관련 동영상을 보고 북한의 인권에 대해 느낀 점 혹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회원국인 칠레의 역할 등에 대한 수필을 공모하고 있음. 6일 열리는 한반도 세미나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도 있을 예정이다.

2016. 5. 18.

■ 유엔 인권최고대표 “北인권, 책임 물을 사람에게 묻게 될 것”(연합뉴스)

-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북한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 자이드 최고대표는 지난 16일 미국 워싱턴의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소용돌이와 같은 세계에서의 인권’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계속 (북한의 범죄적 인권침해) 증거를 확보해나가면, 궁극적으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사람에게 묻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북한의 인권침해 조사항목은 식량권, 표현의 자유, 생명권, 이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정치범수용소에 의한 침해, 고문과 비인간적 처우, 자의적 체포 및 구금 등 9개임.

■ **요덕수용소 출신 탈북자, 다음주 노르웨이 국제인권행사 증언 (미국의소리)**

-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인 요덕15호 관리소 출신 탈북자 정광일 씨가 다음 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열리는 국제 인권행사에서 증언할 예정이다.
-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인 ‘인권재단’이 주관하고 노르웨이 외교부와 노르웨이의 프리트로드 재단 등이 공동 후원하는 국제 인권행사인 ‘오슬로 자유포럼’은 최근 웹사이트를 통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리는 올해 행사의 연사 가운데 정광일 노chein 대표가 포함됐다고 밝힘. 지난 2009년 시작돼 올해로 8번째를 맞는 이 연례행사에서 탈북자가 연설하는 것은 정 대표가 6번째임.

2016. 5. 19.

■ **다루스만, 北 상황발생 대비해 다가갈수 있는 준비도 필요(연합뉴스)**

- 다음 달 임기가 종료되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의 인권유린은 명료하게 반인도적 범죄로 정의할 수 있다”고 19일 말함.
- 다루스만 보고관은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와 서울유엔인권사무소 등이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북한인권국제심포지엄’에 기조연설자로 나서 “북한 인권 문제를 이슈화한 것이 (임기 내) 주목할 만한 성과”라면서 이같이 밝힘.
- 다루스만 보고관은 북한 인권과 외교·안보 구도가 긴밀하게 연계돼 있음을 확증한 것도 성과로 평가함.
- 이성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북한은 모든 인민의 평등을 표면적으로 내세우지만 열악한 인권 상황은 사회적 취약 계층에 더 큰 고통을 준다”며 “국제사회와의 협력과 공조를 활발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함.

2016. 5. 20.

■ **반기문 총장 “북한, 도발 중단하고 인권 개선해야”(미국의소리)**

-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8일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연례 만찬행사 기조연설에서, 국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지 않고 있다고 말함.
- 북한이 도발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있고, 북한의 인권침해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임. 아울러, 북한의 기아와 영양실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인데도, 군사비 지출은 늘고 있다고, 반 총장은 지적함.
- 반 총장은 북한에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고 다자간 협상에 복귀하라고 강력히 촉구함. 그러면서, 외교적 해결이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함.

- 또한 반 총장은 북한에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검토 UPR 권고사항을 이행하라고 촉구함.

■ 北인권단체 대표, 북한 주민들 김정은을 ‘정은이’라고 불리(연합뉴스)

- “지금은 북한 주민들과 전화통화를 하면 김정은을 친구 부르듯 ‘정은이’라고 한다.”
- 북한정치범수용소피해자가족협회(노체인·No Chain) 정광일 대표는 19일(현지시간) 오후 런던의 영국 의회내 한 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예전엔 장군님이라든지 수령님이라든지 존칭을 붙였다”면서 이같이 증언함.
- 이날 자리는 영국 의회내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그룹(APPGNK)’이 장 대표로부터 북한 정권의 정보 장벽 깨기 활동을 청취하려고 마련한 것임. 이 자리에 참석한 50여명은 장 대표의 증언에 귀를 기울였고, 증언이 끝나자 질문들이 쏟아져 나옴
- 영국 공영방송 BBC가 연내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한국어 단파라디오 방송 개시를 준비하는 까닭에 장 대표의 증언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모습이었음. 이 자리에는 APPGNK 공동의장인 피오나 브루스 하원의원을 비롯해 하원의원 3명이 참석함.

■ 여성이 바로 북한변화의 견인차(자유아시아방송)

- 지난 19일 서울에서는 의미 있는 북한인권 행사가 있었음. 프랑스 파리와 태국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인권 활동가들이 참여한 ‘유엔 인권기구와 북한여성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임.
- 2월에 ‘북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주제로 영국의 런던에서 국제대회가 있었고, 북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행사가 열리기는 올해로 두 번째임. 유엔의 북한 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가 나온 이후 국제적인 북한인권 운동은 문제의 책임자를 찾아내고 범죄사실을 확인하는 단계로 접어듦. 그렇기 때문에 인권단체들은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인권유린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의 책임소재와 해결점을 논의하고 있음.
- 이번 행사도 북한인권 운동의 이런 흐름에 맞춰 ‘여성인권’이라는 주제로 해결방안에 접근하려는 시도였음. 즉 북한의 여성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의 어떤 기구들을 활용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인권개선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하는 자리를 가짐.

2. 북한인권 내부동향

2016. 5. 15.

■ 北, 종업원 송환 또 요구…“유엔, 돌려보낼 대책 세워야”(연합뉴스)

- 북한은 중국 내 북한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을 우리 정부의 반인륜 범죄라고 비난하며 유엔과 국제인권기구가 이들을 북으로 다시 돌려보낼 대책을 세워야

- 한다고 거듭 요구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집단 탈북사건은) 우리 공화국(북한)의 존엄과 주권에 대한 난폭한 침해이고 북남대결과 긴장 격화를 고취하는 용납못할 엄중한 정치적 도발이며 우리 공민들의 인권을 무참히 유린한 전대미문의 특대형 범죄”라고 비난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 대변인은 “(종업원) 가족들은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유엔인권이사회 의장에게 남조선 당국의 범죄행위를 고소하고 대책을 요구하는 편지를 발송했다”며 “유엔과 국제인권기구들은 남조선 당국의 반인권 범죄를 응당 문제시하고 우리 공민들을 한시바빠 가족들의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해당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함.

3. 북한인권 남한동향

2016. 5. 16.

■ 민변, 탈북 北종업원 접견신청 거부당해…행정소송(연합뉴스)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경기 시흥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찾아 지난달 7일 입국한 북한식당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재차 요구했지만 거부당함. 이에 민변은 행정소송 등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힘.
- 민변 통일위원회 소속 변호사 1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옛 국정원 합동신문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들이 북한 종업원들에 대한 접견을 요청하고 있으나 국정원은 ‘종업원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라며 “종업원들이 자유의사로 입국한 게 맞다면 변호인들의 접견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함.
- 국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받는 경우를 제외하면 그간 북한이탈 주민의 변호사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음. 통일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탈북 종업원들은 자발적으로 입국한 것이고 우리 사회 정착을 위한 초기 단계라 안정을 찾아가고 있으므로 외부인 접견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힘.

2016. 5. 17.

■ 北김정은, 식당종업원 탈북 관련 南에 보복 지시(데일리NK)

-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을 국가안전보위부에 지시했다고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NK가 17일 주장함.
- 데일리NK는 평안남도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달 중국에서 발생한 여종업원들의

- 집단 탈북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관(보위부)에 (김정은의) 긴급지시가 최근 하달됐다”면서 “남조선(한국) 당국에 (북한 종업원들의) ‘즉시적인 송환을 요구하고 불응할 경우 몇천 배의 복수를 가하라’는 지시가 내려졌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가보위부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대북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함.

2016. 5. 19.

■ **한국 내 대북지원단체들, 정치 상황 별개로 인도적 지원 계속돼야(미국의소리)**

- 월드비전 이주성 북한사업팀장은 토론회 주제발표에서 순수한 인도적 대북 지원사업은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촉구함.
- 이 팀장은 북한이라고 무조건 돕는 게 아니라, 북한에 인도적 지원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돕는 것이라며 통일된 미래에서 같이 살아가야 할 한민족인 만큼 우리 모두의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함.
- 대북지원 20년을 맞아 최근 기념백서를 발간한 북민협은 그 동안 식량과 의류 지원 등 긴급구호 분야는 물론 농축산 자재, 의료보건, 우선복지, 취약계층 사업 등 다양한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을 펼쳐옴. 하지만 지난해 12월 고위급 회담 파탄과 올 1월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정부 차원의 지원은 물론 민간 차원의 인도적 지원마저 모두 중단됨.
- 산업은행 김영희 북한경제팀장도 정치적 상황을 떠나 남북간 인도적 지원이나 스포츠, 예술 등의 교류가 이뤄진다면 남북간 이질성을 동질성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경협은 북한 핵 문제로 당장 어렵더라도 인도적 지원과 교류는 빠른 시일 내에 재개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남북자·국군포로

2016. 5. 16.

■ **탈북자 북-중 월경 비용, 1만 달러 이상 치솟아(미국의소리)**

- 탈북자 지원 활동을 펴온 한국의 ‘갈렙선교회’ 김성은 목사는 김정은 집권 이후 탈북자 수가 크게 줄어든 이유로 북-중 국경을 넘어오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치솟은 때문이라고 말함.
- 김 목사는 16일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지난해 북한 내부를 찍은 동영상들을 공개하면서 이같이 말함.
- 김 목사는 공개한 동영상을 통해 북한과의 접경지역에 중국 당국이 설치한 철책을

보여주면서 탈북자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도 철조망을 계속해서 설치해 이중의 장벽을 만들고 있다고 밝힘.

- 이와 함께 김정은 정권 들어 탈북 행위에 대해 한층 가혹해진 처벌 또한 탈북자 감소의 한 이유라고 지적함.
- 김 목사는 장마당 등 시장 경제가 퍼지면서 고난의 행군과 같은 극도의 굶주림에서 벗어난 북한 주민들의 탈북 동기도 바뀌고 있다고 설명함.

2016. 5. 18.

■ **아베, 對北 압력·대화 병행으로 납치문제 해결 전력(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19일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에 대해 아픔을 느끼도록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대화 창구를 닫지 않고 문제 해결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함.
- 그는 이날 총리 관저에서 열린 ‘여야정 납치문제 대책기관 연락협의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이번 협의회는 최근 열린 북한 노동당대회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노동당 위원장에 취임하는 등 북한 내부의 변화에 따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림.

5. 대북지원

2016. 5. 19.

■ **러시아 지원 밀가루 2천400t 북한 도착(연합뉴스)**

- 러시아가 북한에 지원한 밀가루 2천394t이 최근 북한 청진항에 도착했다고 러시아 스푸트니크 통신이 19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을 인용해 보도함.
- 이 밀가루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러시아가 기부한 돈으로 구입해 전달함.
- 러시아의 대북 밀가루 지원은 이번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지난 3월 2천500t을 제공한 바 있음.
- 밀가루는 영양과자와 곡물·우유 혼합물로 가공돼 함경남북도, 강원도의 어린이집 과 각급 교육기관에 제공될 예정임.

2016. 5. 20.

■ **국제구호단체, 북한에 ‘영양쌀’ 28만3천명분 지원(연합뉴스)**

- 국제 구호단체인 ‘스톱 헝거 나우’가 북한의 결핵·간염 환자들을 위해 ‘영양쌀’과 비누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보도함.

- 이 단체는 지난 11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28만3천명이 먹을 수 있는 영양쌀과 비누 24박스를 북한에 보냄. 영양쌀은 미국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통해 북한에 있는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환자들에게 제공될 예정임.
- ‘스톱 형거 나우’는 올해 한 차례 더 영양쌀을 북한에 보낼 계획임.

■ 프 NGO, 북한에 단백질 · 지방 공급 사업(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의 민간단체 ‘프리미어 위장스’는 20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북한 황해남도 4개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농축산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프리미어 위장스’는 유엔 인도주의업무 조정국에 북한 주민 3만 여명을 위한 대북 사업을 위해 230만 달러를 요청했다고 전함.
- ‘프리미어 위장스’의 소피 베노리엘 대북 사업 담당관은 황해남도 해주시, 신원군, 삼천군 등의 협동 농장에서 염소 우유로 만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을 생산해 북한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염소 사육방법을 교육해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사업의 목표로 하고 있음.
- ‘프리미어 위장스’는 유엔 인도주의 조정국외에도, 유럽연합으로부터 132만 달러를 지원받고 있으며, 프랑스 정부, 스웨덴 즉 스웨리에 국제개발협력청 등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지원받고 있음.